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5. 12. 7.(일) 12:00 <12. 8.(월) 조간>	배포일	2025. 12. 5.(금)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김소영 팀 장(043-880-5421) 정형우 대 리(043-880-5426)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담당자	김민지 과 장(044-200-4418) 조상훈 사무관(044-200-4420)

※ 주말 앱바고 주의: 12월 7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

[소비자안전주의보]

겨울철 난방용품, 과열 및 제품 손상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실내의 온도를 높이거나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하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사고 접수가 많은 8개 품목(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총전식 손난로)을 선정하여 분석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난방용품 사고, 1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건),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 ('20년) 682건 → ('21년) 758건 → ('22년) 682건 → ('23년) 1,064건 → ('24년) 968건

□ 화재 ·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 · 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건)로 뒤를 이었다.

'화재 · 과열 관련' 안전사고는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는 품질 문제 또는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난로)’는 위해 원인 중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0%(1,545건)와 40.9%(113건)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건)로 가장 많았는데,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다.

<난방용품 품목별 주요 위해원인 현황(6p 참고)>

(단위: 건, %)

구분	전기장판 및 전기요	온수 매트	전기 히터	찜질기	전기 온풍기	전기 방석	온열 용품	충전식 손난로
화재·과열 관련	1,545 (58.0)	113 (16.5)	113 (40.9)	105 (62.5)	55 (34.2)	56 (49.1)	42 (65.6)	14 (66.7)
제품 불량 관련	889 (33.3)	415 (60.7)	85 (30.8)	23 (13.7)	73 (45.3)	6 (5.3)	7 (10.9)	3 (14.3)
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138 (5.2)	149 (21.8)	60 (21.7)	3 (1.8)	15 (9.3)	5 (4.4)	5 (7.8)	- (-)
:	:	:	:	:	:	:	:	:
전체	2,666	684	276	168	161	114	64	14

□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에 취약, 안전수칙 준수해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증상 중 ‘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되어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전기장판 위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 것,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사용을 피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붙임 1. '난방용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소비자 안전사고 사례
3. 소비자 주의사항



불임 1

‘난방용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 (연도별) 최근 5년간(2020~2024년)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4,15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난방용품	682	758	682	1,064	968	4,154

- (월별) 4,154건의 안전사고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이 17.8%(74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월’ 14.2%(589건), ‘2월’ 12.4%(514건) 등의 순이었음

- 계절별로는 ‘겨울(12월~2월)’ 이 40.1%(1,6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봄(3~5월)’ 26.9%(1,117건) ‘가을(9~11월)’ 22.0%(9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월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비율)
3월	88	62	81	162	112	505 (12.2)
4월	76	55	70	64	97	362 (8.7)
5월	42	45	45	61	57	250 (6.0)
6월	18	46	41	51	39	195 (4.7)
7월	11	47	16	37	36	147 (3.5)
8월	16	28	28	21	21	114 (2.7)
9월	24	26	21	19	12	102 (2.5)
10월	35	36	49	69	34	223 (5.4)
11월	100	177	73	126	113	589 (14.2)
12월	138	95	36	46	97	412 (9.9)
1월	71	86	138	233	213	741 (17.8)
2월	63	55	84	175	137	514 (12.4)
합계	682	758	682	1,064	968	4,154 100.0

- (위해원인별) 주요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화재·과열 관련’이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제품 불량 관련’ 36.1%(1,501건), ‘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9.0%(375건) 등의 순이었음

<위해원인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화재·과열 관련	335	281	314	549	564	2,043	(49.2)
제품 불량 관련*	249	302	258	417	275	1,501	(36.1)
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70	58	41	87	119	375	(9.0)
물리적 충격	4	4	3	3	4	18	(0.4)
의료시술 및 약물	7	-	-	-	-	7	(0.2)
피부 관련(피부염 등)	1	1	-	2	1	5	(0.1)
기타**	16	112	66	6	5	205	(4.9)
합계	682	758	682	1,064	968	4,154	100.0

* 품질 문제, 고장 등

** 표시사항, 제품인증 관련 등

- (품목별)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전기장판 및 전기요	398	440	433	751	644	2,666	(64.2)
온수매트	159	179	99	145	102	684	(16.5)
전기히터(난로)	34	38	46	75	83	276	(6.6)
찜질기	31	24	44	21	48	168	(4.1)
전기온풍기	26	30	24	30	51	161	(3.9)
전기방석	6	35	18	29	26	114	(2.7)
온열용품	23	5	13	12	11	64	(1.5)
충전식 손난로	5	7	5	1	3	21	(0.5)
합계	682	758	682	1,064	968	4,154	100.0

- (품목별 위해원인) 품목별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장판 및 전기요’는 ‘화재·과열 관련’이 58.0%(1,545건),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이 60.7%(415건)로 가장 많았음

<품목별 위해원인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기장판 및 전기요	온수 매트	전기 히터	찜질기	전기 온풍기	전기 방석	온열 용품	충전식 손난로
화재·과열 관련	1,545 (58.0)	113 (16.5)	113 (40.9)	105 (62.5)	55 (34.2)	56 (49.1)	42 (65.6)	14 (66.7)
제품 불량 관련*	889 (33.3)	415 (60.7)	85 (30.8)	23 (13.7)	73 (45.3)	6 (5.3)	7 (10.9)	3 (14.3)
누전 협선등 전기 관련	138 (5.2)	149 (21.8)	60 (21.7)	3 (1.8)	15 (9.3)	5 (4.4)	5 (7.8)	-
물리적 충격	8 (0.3)	4 (0.6)	2 (0.7)	1 (0.6)	3 (1.9)	-	-	-
의료시술 및 약물	-	-	-	-	-	-	7 (10.9)	-
피부 관련 (피부염 등)	3 (0.1)	1 (0.1)	-	-	-	-	1 (1.6)	-
기타	83 (3.1)	2 (0.3)	16 (5.8)	36 (21.4)	15 (9.3)	47 (41.2)	2 (3.1)	4 (4.0)
합계	2,666 (100.0)	684 (100.0)	276 (100.0)	168 (100.0)	161 (100.0)	114 (100.0)	64 (100.0)	21 (100.0)

* 품질 문제, 고장 등

** 표시사항, 제품인증 관련 등

- (위해증상별) 위해증상이 확인된 579건을 살펴보면, ‘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4.8%(28건), ‘신체 내부 장기 손상’ 4.0%(23건) 등의 순이었음

<위해증상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화상	120	92	87	102	93	494 (85.3)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5	6	5	6	6	28 (4.8)
신체 내부 장기 손상**	5	3	4	6	5	23 (4.0)
전신 손상***	1	2	2	5	2	12 (2.1)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	-	1	-	-	6 (1.0)
뇌진탕 및 타박상	-	-	-	1	2	3 (0.5)
기타 손상****	4	4	3	2	-	13 (2.2)
합계	140	107	102	122	108	579 100.0

* 열상, 찰과상 등

** 호흡계통 관련

*** 감전 등

****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불임 2 소비자 안전사고 사례

전기장판 및 전기요

- (39세, 남)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
- (49세, 여) 전기요 사용 중 몸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함
- (61세, 여)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하자로 사용 중 저온화상을 입음

온수매트

- (36세, 남) 온수매트 전선 연결 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함
- (26세, 여) 온수매트 사용 중 물이 새어나오며 발에 닿아 화상을 입음
- (연령 미상, 여) 온수매트 열선이 끊어지면서 과열되어 매트 일부가 타고 연기가 발생함

전기히터(난로)

- (79세, 남) 전기히터 과열로 인해 녹은 덮개에 손이 닿아 3도 화상을 입음
- (39세, 남) 전기히터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며 장판, 이불이 훼손됨
- (25세, 여) 전기난로 사용 중 폭발하며 파편이 튀어 화상을 입음

찜질기

- (49세, 여) 찜질기 장시간 사용 후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음
- (연령미상, 남) 찜질기 사용 중 과열로 인해 열선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함
- (59세, 여) 찜질기 사용 중 합선이 발생해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난방용품 품목별 주의사항



전기장판 및 전기요

- 온도 조절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세요.
-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의 매트 또는 이불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 전선,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말아서 보관해주세요.

온수매트

-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관이 꺾이지 않도록 설치하세요.
- 온도 조절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 온도(37~40°C)에서 사용하세요.
- 생수 또는 정수된 물을 넣어서 사용하세요.

전기히터(난로)

-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말고, 먼지와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세요.
-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세요.

찜질기

- 목, 얼굴 등 민감한 부위에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
-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건조 후 사용하세요.

전기방식

- 열선이 튀어 나와있는지, 방석이 파손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말고, 가급적 앉아서 사용하세요.

공통 주의사항

- KC 인증제품을 구입하세요
-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세요.
- 전선 열선이 꺾이지 않게 보관하고, 미사용 시 플러그를 뽑으세요.